

은 사랑*

한국티스타 소식지 통권 제50호

- 02 들어가는 글
자기 결정권과 티스타
양주열 선부
- 04 클릭! 핫이슈
낙태죄 폐지? 남성책임법 먼저
김혜선 수녀
- 06 교육 후기
아내의 몸애 관심을 가져주는
남편 '참 쫄구나' 윤물순안젤라
- 08 티스타 지금!
지역 소식 | 한국티스타 현장
교육 및 후원 안내
- 11 후원자 명단

2019 **6**

자기 결정권과 틴스타(TeenSTAR)

양주열 신부 (한국틴스타 담당 신부)

계획된 삶, 계획되지 않은 삶?

‘계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계획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선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여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계획된 삶’을 사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좋은 가치로 제시하는 듯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는 올바른 정보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정보입니다.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가 있을 때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정보를 통해 좋은 결정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

람은 누구든지 좋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할수록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망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 결정권의 기본은 올바른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정보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

**좋은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는
정보를 판단하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

두 번째는 올바른 판단의 기준입니다. 세 상에는 무수히 많은 정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나 눈에 보이지 않은 의미 가치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과 능력에 따라 좋은 선택과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의 결과는 그 행위를 통해 행위를 한 주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게 되며 그 행위의 결과들은 그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인격적’이라는 표현의 뜻은 그의 행위가 인간 존엄성에 합당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가치와 의미를 선택하는 결정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며 그러한 자기결정권은 책임을 감내

사람들은 각자가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고 편리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선택과 결정에는 필요와 편리뿐만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포함됩니다. 가치와 의미를 선택하는 결정은 인간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들어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고 드높여 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이는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감내합니다. 그러한 자기 결정은 인격적인 행위이기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배재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 연합뉴스

사회로부터 들려오는 ‘미투’, ‘낙태법’, ‘성접대’ 등의 소식에 어이없어 분노하고 놀라며 한숨짓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것이 올바른 정보와 가치를 제공하는 성교육입니다. 그러나 성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바다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피임을 잘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교육의 핵심은 ‘인격’

혼란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인격’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필요와 편리대로 대하면서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성교육은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는 ‘인격적 성교육’입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자기 결정 능력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틴스타 교사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교육의 때입니다. 자기 결정 능력과 생식력 자각 그리고 책임감은 인격적 성교육 틴스타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자기 결정 능력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틴스타 교사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참으로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본보기로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틴스타 소식지 ‘품 사랑’을 통해 틴스타 교사 여러분께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낙태죄 폐지? 남성 책임법 먼저 도입해야

김혜선 수녀 (착한목자수녀회) 인터뷰
가톨릭 평화신문 2019.03.31 발행 [1508호]에서 발췌

“여성들이 현명해져야 합니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남성들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편리를 위해 낙태를 하지만, 그 후에 감당할 뉘은 온전히 여성에게 갑니다. 남성이 그 짐을 져 주지 않습니다.”

10년 가까이 틴스타 교사로 활동해온 김혜선(착한목자수녀회, 플라치다) 수녀를 21일 서강대 강의실에서 만났다. 김 수녀는 신학대학원에서 윤리신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착한목자수녀회가 2010년부터 시작한 낙태 치유 피정을 돕고 있다.

김 수녀는 낙태죄를 이야기하며 “가슴 아프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낙태한 여성들이 피정에 오면 죽을 만큼 울고 갑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고해소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낙태한 죄를 기어 갚기 위해 열심히 봉사도 해보는데 죄가 말끔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혼자서 그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낙태 치유 피정에는 5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다녀갔다. 그가 곁에서 본 낙태 후유증의 고통은 차라리 눈을 감고 싶어질 정도다. “언어 장애가 오거나 성관계를 더는 하지 못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낙태 시술을 받을 때 소독약 냄새와 가위질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를 동안 헛구역질만 하다 가신 분도 있었어요.”

피정에 왔던 여성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하다. 기혼도 있고 미혼도 있다. 한글을 깨치지 못한 할머니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습니다. 학자층이건 아니건, 삶의 형태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모두 여성입니다.”

김 수녀는 “눈도 잘 안 보이고 잘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죽기 전에 단 한 번 하느님 앞에서 낙태한 죄를 보속하겠다는 마음으로 피정을 오신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할머니들이 파견 미사를 하고 나가실 때 이런 말씀

을 하세요. 젊은 여성들이 내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낙태하는 순간 삶이 온통 거기에 매여 있다고.”

자유와 행복을 위해 선택한 낙태가 평생 마음의 짐의 짐으로

여성들이 자유롭게 행복해지기 위해 자기 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낙태를 선택하지만,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김수녀는 “생명을 지어내도록 하느님이 만드신 여성의 몸 안에서 생명이 죽어 나갔을 때의 고통은 여성이 혼자 감당한다”고 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인구 정책을 펼치고 낙태약을 뿌린 건 국가입니다. ‘낙태가 불법이다, 죄다’ 이런 이야기만 했지 여성들이 낙태로 내몰리기까지의 긴 과정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여성들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는 낙태죄 위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 여성들은 낙태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성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 책임법 없이 낙태죄만 없어져 버리면 남성들은 성관계에 작은 양심도 없어진다고 했다. “여성들은 낙태한 후 고해소에 수없이 드나들고 피정까지 오는데, 남성들은 고해소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는 ‘두 사람의 염색체가 아기를 만든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 성관계는 최소한 두 사람의 합의로 이뤄지는데, 영적·신체적·정서적인 ‘총체적 고통’은 여성만 지고 간다는 것이다.

김수녀는 청년과 성인, 신학생을 대상으로 틴스타 교육을 해왔다. 그는 틴스타를 통해 ‘하느님의 모상성’을 바탕으로 생명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학생들의 변화를 눈으로 보았다. 그는 틴스타 교육에 영감을 준 몸의 신학에 관심을 두게 됐고, 몸의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했다. 논문 주제는 ‘낙태’로 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가톨릭이 생명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어요. 하느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러면 하느님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해요”

김수녀는 “하느님은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생명에 보수와 진보라는 논리를 대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생명은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는 이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의 가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특히 남성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좀 더 알아보시다

**위헌에는 단순 위헌과 헌법 불합치가 있습니다.
(재판관 7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단순 위헌(3명): 여성의 건강을 위해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합니다. 낙태죄 규정은 즉시 무효로 선언됩니다.

헌법 불합치(4명): 모든 낙태가 위헌은 아니지만 지금의 결정은 여성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즉시 낙태죄 규정은 무효라고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공백이 생기고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시기와 낙태 대상, 절차 등에 대한 보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합니다. 그 개정안은 22주까지 태아 발생에 자기 생존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수단에는 차이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합헌(재판관 2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발생 자체로 인간 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생명권을 보호하는 수단엔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생명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아내의 몸에 관심을 가져주는 남편 '참 좋구나'

윤을순 안젤라 (부산교구 석포성당)

올해 초 본당 신부님께서 자모회, 한나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부르셔서 최근 저희가 사는 곳 근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고학년 남학생 사이에서의 성관계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임신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또래 자녀를 둔 엄마로서 그 아이가 너무 가여우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문란한 성문화가 초등학교생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본당 신부님께서 틴스타 교육을 소개 주셨는데, 신부님 말씀을 듣고나니 틴스타 교육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부부도 틴스타 교육에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틴스타 교육 첫 번째 시간은 양주열 신부님의 몸의 신학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끄시는 몸의 신학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몸은 어디에서 왔는지? 등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우리 몸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몸조차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부님 말씀 중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참 좋았다’예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시면서, 하느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하고 질문 하시며,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사랑), 자유, 어머니다움(모성), 아버지다움(부성)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을 때, 제 몸의 소중함과 타인의 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틴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제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가 받는 이 교육은 단순한 성교육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어머니들을 통해 들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주로 피임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틴스타 교육을 받고나서 저희 남편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교육을 통해 뭘 알아서 일까요? 아내인 제 몸을 예전보다 훨씬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남편이 저의 몸을 존중해 주니, 저도 저의 몸이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틴스타 교육을 받기 전에는 여자의 몸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교육을 마친 지금도 여전히 여자의 몸은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제가 원래 배란통이 있는데, 어느 날 배가 아프다고 하니, 남편이 “어느 배가 아픈데?” 하고 묻는 거예요. 아픈 배가 생리통 때문인지, 배란통 때문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배란통이라고 하니 배란통은 얼마동안 아프냐며 누워서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이 틴스타 교육을 받고 와서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아내의 몸에 관심을 가져주는 남편을 보며 부부가 같이 틴스타 교육을 받는 것도 참 좋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생활하니 더욱 더 부부생활이 좋아졌습니다. 틴스타 교육 중에 남녀의 다름에 대해서도 강의하거든요. 스크린을 보며 남과 여의 다름을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교육받았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저는 몸의 소중함과 생명사랑, 인간존중을 가르치는 틴스타 교육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좋은 것이 자녀를 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널리 퍼져나갔으면, 보다 많은 곳에서 틴스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하신다고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부부를 이 교육의 장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틴스타 소식

대구

- 월례회의
- 틴스타 남교사들의 교안 모임(남성을 위한 틴스타)
- 틴스타 여교사들의 교안 모임(여성을 위한 틴스타)
- 황금중학교 특강



대구 교사 월례회의(4월)

서울

- 신년미사
- 독서모임 (인간생명, 사랑의 신비를 통한 치유, 82년생 김지영,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교사회의
- 교재읽기 모임
- 서울틴스타 나들이



서울 독서모임 (3월)

울산

- 교사모임



울산 교사모임

인천

- 월 정기모임에서 가정공동체 책 나눔
- 교구청년틴스타 1기, 6월부터 성인을 위한 틴스타 진행 예정



인천 교사모임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2019 한국 틴스타 수업현장

분류	지역	현장명	담당교사
학교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여성)	박현화 선생
	대구	김천 성의여자고등학교(여성)	전순애, 전수영, 전미진, 유경진, 최용희 선생
		경산여자중학교(소녀)	홍경희, 김우선 선생
	대전	황금중학교(소년/소녀)	홍경희+석상희 신부, 배수경, 송현진+조홍범, 성주영 선생
		대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성인)	이의정 신부+김혜정 선생
	서울	난우중학교(소년)	전찬용 신부
	의정부	화요일예술학교(여성)	정복영 수녀, 장혜영 선생
	인천	대건고등학교(남성)	김민수 신부+조정옥, 손문희, 황윤정, 이병주 선생
	포항	오천중학교(소년/소녀)	신현옥 선생, 최경화 수녀, 이성웅 신부, 이재근 신부
종교단체	광주	금호2동 성당(소년/소녀),(남성/여성)	박미옥+신동일, 이정문, 이명효, 임하영+박현화 선생
	대구	복현성당 자모회(성인)	허선아 선생
		구미 봉곡성당 자모회(성인)	배수경, 석현경 선생
	마산	왜관 석전성당(소년/소녀),(남성/여성),(성인)	김외택, 최용희, 강민욱, 이영희, 사금연, 정대현 선생
		진주 상평성당(여성)	윤은진 선생
	서울	제기동 성당(남성)	김태웅 선생
		여의도 성당(소년/소녀),(성인)	김혜정+공수진, 김기환+정정예, 이희준 선생
		신수동 성당(소년/소녀), 부모모임	오민아, 김태웅+박주원, 임복규 선생
		삼각지 성당(성인)	이진아 수녀, 박종인 신부
		성가소비녀회 첫 서약자(성인)	김선영 수녀
	인천	신정3동 성당(소녀)	원지은 선생
	포항	효자 성당(성인)	신현옥 선생
	기관	대구	군위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소년),(성인)
의정부		아람 청소년센터(소녀)	김동연 선생



광주 금호2동 성당



포항 오천중학교



대구 경산여자중학교



대구 군위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한국 틴스타 소식

교재

- 교재 6권 분권화 완료
- 6-11세 어린이를 위한 교재 준비 중

전국교사모임

2019 한국틴스타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

- ▶ 대상 : 한국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 수료자
- ▶ 일시 : 2019년 11/9(토) 오후 2시 ~ 10(일) 오후 4시
- ▶ 장소 : 서울 유스호텔

화해피정

2019년 화해피정 (낙태 후 치유피정)

- ▶ 일시 : 7/19(금)-21(일), 9/27(금)-29(일), 10/4(금)-6(일)
- ▶ 장소 : 가평 성 빈센트 환경마을
- ▶ 진행 : 함혜은 다미아나 수녀(착한목자수녀회)
- ▶ 문의 : 010-9318-1366(당일접수불가)
- * 6월의 화해피정은 6/14(금)-16(금)까지 제주 면형의 집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사양성 워크숍

- 158차 수원워크숍(철산성당) 2018.12.1-2019.3.9
- 160차 서울워크숍 2019.1.7-11
- 161차 광주워크숍 2019.1.17-20
- 162차 울산워크숍 2019.1.19-20, 26-27
- 163차 필리핀워크숍 2019.2.23-26
- 164차 대전워크숍 2019.2.9-10, 16-17
-
- 165차 서울워크숍 2019.7.1.-5.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진리관
- 166차 제주워크숍 2019.6.29-30, 7.6-7
제주교구청 2층 회의실
- 167차 인천워크숍 2019.9.21-22, 28-29
인천교구 사회사목센터 4층

소개특강

-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 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 대상
- 수원교구 제2대리구 / 자모회 대상
- 서울대교구 1지구 중고등부 교사 연합회 / 주일학교 교사 대상
- 부산교구 '성과 사랑' / 가톨릭 청년 대상
- 부산교구 우동성당 / 자모회 대상
- 부산교구 / 부산교구 자모회장 대상
- 부산교구 / 부산교구 본당 사제 대상
- 포항효자성당 / 자모회 대상

대중매체홍보

- 김기환 "가족과의 대화가 가장 좋은 성교육" /2018.12.03./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김혜선 수녀 "낙태죄 폐지? 남성 책임법 먼저 도입해야"/2019.03.31./가톨릭평화신문
- 김혜정 "피임 잘 하게 도와주는 것 진정한 성교육이 아닙니다"/2019.05.12./가톨릭평화신문
- 양주열 신부 "가톨릭 청년의 성과 사랑" /2019.05.29./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사랑이 있는 세상>

한국 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사무국로 연락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100-998647 (예금주:한국틴스타)

[2018년 한국틴스타 개인 및 단체후원]

강경희, 강나원, 강명선, 강병욱, 강보심, 강서은, 강성실, 강성은, 강성호, 이상수, 이상욱, 이상호, 이석규, 이선화, 이선희, 이설희, 이성희, 이수경, 이수련, 이수진, 이수호, 이숙기, 이순례, 이순희, 이승현, 이연복, 이영선, 이영숙, 이영애, 이영진, 이영희, 이영희, 이요한, 이우석, 이유정, 이윤우, 이은경, 이은경, 이은비, 이은숙, 이은애, 이은정, 이은화, 이임재, 이정미, 이정미, 이정숙, 이정순, 이정은, 이정은, 이정자, 이정현, 이정화,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제옥, 이채형, 이철우, 이필숙, 이하나, 이현주, 이향윤, 이혜경, 이혜경, 이호욱, 이회정, 이효순, 이훈정, 이희경, 이희자, 이희정, 임견주, 임경희, 임광희, 임미나, 임미라, 임상교, 임세웅, 임수경, 임영란, 임진옥, 임채란, 임혜원, 임희정, 장경희, 장경희, 장남희, 장병길, 장성욱, 장순덕, 장순희, 장승혁, 장영록, 장영미, 장유리, 장지숙, 장희선, 전민영, 전수영, 전준금, 정경선, 정경숙, 정광미, 정미영, 정병도, 정선주, 정성희, 정성희, 정수진, 정양숙, 정영미, 정은희, 정재명, 정재우, 정주연, 정준교, 정해인, 정해정, 정형민, 정희주, 조경덕, 조규호, 조미경, 조미선, 조미영, 조미혜, 조미희, 조병진, 조병호, 조복희, 조성호, 조성희, 조숙자, 조영신, 조영종, 조용운, 조원준, 조은아, 조정자, 조희수, 조희수, 주새봄, 주지숙, 진성욱, 차형주, 차효숙, 채도근, 채희정, 천정기, 최훈, 최경화, 최경희, 최도환, 최명숙, 최병혜, 최수령, 최숙, 최승화, 최양심, 최연수, 최영진, 최영희, 최인숙, 최재분, 최재영, 최정혜, 최찬단, 최현숙, 최혜원, 최효영, 편성미, 하경욱, 하경희, 하경희, 하경희, 하영애, 하용준, 한경숙, 한승덕, 한승희, 한혜숙, 한혜정, 한희석, 함광란, 허동 (주)메탈153, 허성학, 허세란, 허옥희, 허은정, 허인화, 홍미숙, 홍미화, 홍선자, 홍성지, 홍성흡, 홍성희, 홍영숙, 홍은미, 홍정자, 홍종욱, 홍현진, 홍호선, 홍호선, 황금화, 황문숙, 황보은, 황숙희, 황유숙, 황현하, 마산교구 틴스타 후원금, 진주 상평성당, 부산 가톨릭대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

이미경, 이미숙, 이미정, 이미희, 이민옥, 이병욱, 이보배, 이상숙, 이상수, 이상욱, 이상호, 이석규, 이선화, 이선희, 이설희, 이성희, 이수경, 이수련, 이수진, 이수호, 이숙기, 이순례, 이순희, 이승현, 이연복, 이영선, 이영숙, 이영애, 이영진, 이영희, 이영희, 이요한, 이우석, 이유정, 이윤우, 이은경, 이은경, 이은비, 이은숙, 이은애, 이은정, 이은화, 이임재, 이정미, 이정미, 이정숙, 이정순, 이정은, 이정은, 이정자, 이정현, 이정화,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제옥, 이채형, 이철우, 이필숙, 이하나, 이현주, 이향윤, 이혜경, 이혜경, 이호욱, 이회정, 이효순, 이훈정, 이희경, 이희자, 이희정, 임견주, 임경희, 임광희, 임미나, 임미라, 임상교, 임세웅, 임수경, 임영란, 임진옥, 임채란, 임혜원, 임희정, 장경희, 장경희, 장남희, 장병길, 장성욱, 장순덕, 장순희, 장승혁, 장영록, 장영미, 장유리, 장지숙, 장희선, 전민영, 전수영, 전준금, 정경선, 정경숙, 정광미, 정미영, 정병도, 정선주, 정성희, 정성희, 정수진, 정양숙, 정영미, 정은희, 정재명, 정재우, 정주연, 정준교, 정해인, 정해정, 정형민, 정희주, 조경덕, 조규호, 조미경, 조미선, 조미영, 조미혜, 조미희, 조병진, 조병호, 조복희, 조성호, 조성희, 조숙자, 조영신, 조영종, 조용운, 조원준, 조은아, 조정자, 조희수, 조희수, 주새봄, 주지숙, 진성욱, 차형주, 차효숙, 채도근, 채희정, 천정기, 최훈, 최경화, 최경희, 최도환, 최명숙, 최병혜, 최수령, 최숙, 최승화, 최양심, 최연수, 최영진, 최영희, 최인숙, 최재분, 최재영, 최정혜, 최찬단, 최현숙, 최혜원, 최효영, 편성미, 하경욱, 하경희, 하경희, 하경희, 하영애, 하용준, 한경숙, 한승덕, 한승희, 한혜숙, 한혜정, 한희석, 함광란, 허동 (주)메탈153, 허성학, 허세란, 허옥희, 허은정, 허인화, 홍미숙, 홍미화, 홍선자, 홍성지, 홍성흡, 홍성희, 홍영숙, 홍은미, 홍정자, 홍종욱, 홍현진, 홍호선, 홍호선, 황금화, 황문숙, 황보은, 황숙희, 황유숙, 황현하, 마산교구 틴스타 후원금, 진주 상평성당, 부산 가톨릭대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

[2018년 서울틴스타 개인 및 단체후원]

김영숙, 김혜정, 양주열, 이경선, 정문호,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전가톨릭대학교, 서울대교구 서초동 성당, 성수동 성당, 제기동 성당,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2018년 인천틴스타 개인 및 단체후원]

강석형, 남경란, 박남훈, 박인서, 변다영, 변정임, 서덕진, 신재경, 심혜선, 안지혜, 양경원, 양승자, 오명자, 오민선, 오미혜, 오세원, 원지은, 유재분, 윤재숙, 이병주, 이정림, 장문정, 정현미, 천영미, 한기욱, 두레생협, 부천 소명여자중학교, 시흥실터, 인천 대건고등학교, 인천교구 가정사목부, 인천교구 삼정동 성당

[2018년 대구틴스타 단체후원]

경산 여자중학교, 경산 장산중학교, 경주 근화여자중학교, 계산 성당, 김천 성의여자고등학교, 군위 성바로 청소년의 집, 꿈뚝 자리 대안교육센터, 대구대교구 본리 성당, 범물 성당, 복현 성당, 성 김대건 성당, 성 토마스 성당, 왜관 석전 성당, 비채회, 상담 대학원 동교회, 포항 오천중학교, 황금중학교, 효성중학교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een STAR

발행일 _ 2019년 6월 (통권 제50호 발행)

발행처 _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_ www.teenstar.or.kr

주 소 _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명동2가)

E-mail _ kteenstar@hanmail.net

전 화 _ 02)727-2358 / 2359

팩 스 _ 02)727-2243

* 표지설명 : 8주된 태아의 모형. 태아는 8주가 되면 2cm쯤 되는 크기로 머리가 몸과 분명히 구별되며 팔과 다리가 길어지고 눈,코,귀,입,손가락,발가락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